

음식을 통한 방사선은 괜찮나요?

음식을 통해 노출되는 방사선과 방사선에 관한 식품검사에 관해 알아두자.



음식을 통해서도 방사선에 노출되나요?

● 식품 중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사선이 방출됩니다.

식품에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륨 (K-40) 입니다.

칼륨은 생물에 필요한 원소로, 대부분의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방사성 칼륨이기 때문에 식품 섭취로 인해 체내에서 방사선에 피폭되게 됩니다.



출처 : 환경성이 작성한 방사선에 의한 건강영향 등에 관한 통일적인 기초자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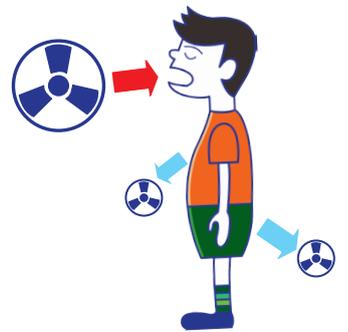
체내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체내에 남아 있나요?

●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됩니다.

체내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소변이나 대변 등에 의해 체외로 배출되어 감소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식품 중의 방사성 물질은 세슘 (Cs-134 · Cs-137) 인데, 성인의 경우는 약 100일* 이 경과하면 그 양이 반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절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나이가 어릴 수록 짧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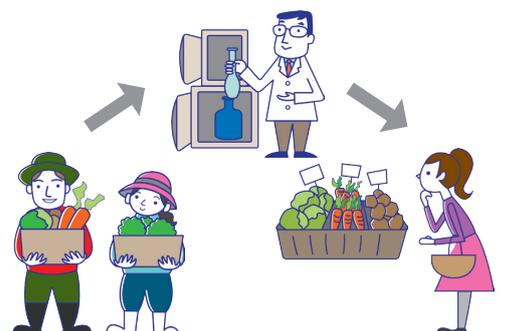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로 식품 안전이 신경 쓰이는데 ...

●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계속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 중의 방사성 물질에는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철저한 검사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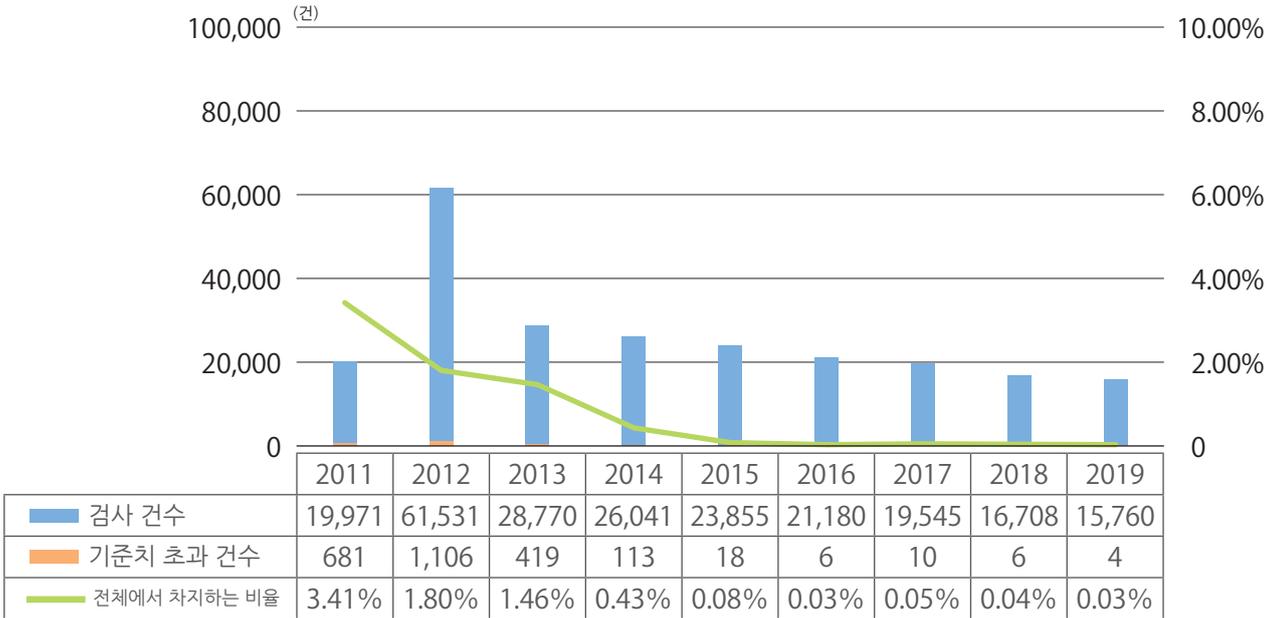
현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거의 없지만, 일부는 아직 출하 또는 섭취에 제한이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산 농림수산물 모니터링 결과의 추이

후쿠시마현에서는 농림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9년 동안,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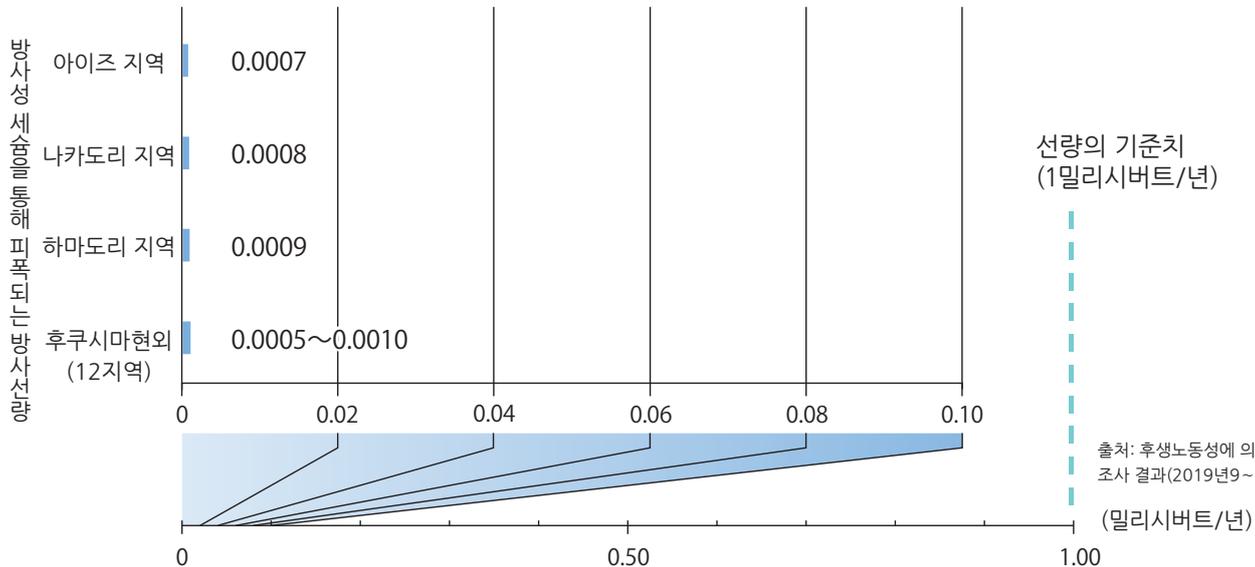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일부 기준치 초과 건수는 잠정규제치를 초과한 건수

출처 : 후쿠시마현의 농림수산물의 모니터링 검사 건수 및 결과의 추이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방사선량 (연간)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을 통해 피폭되는 방사선량 조사 (마켓 바스켓 방식*) 결과, 후쿠시마현에서는 연간 0.0007~0.0009 밀리시버트로 추정됩니다.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연간 선량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의 0.1% 정도로, 극히 적은 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에 의한 식품 중의 방사성 물질 조사 결과(2019년9~10월 조사 분)

(밀리시버트/년)

식품의 방사선량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결과도 공표되고 있군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확인해 보자!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물 · 식품 등의 방사성 물질 검사

※마켓 바스켓 방식

슈퍼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구입해, 그 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고 측정하여 하루 섭취량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



발행 후쿠시마현 의사회

감수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 방사선의학 현민 건강 관리센터

◎이 전단지 내용은 웹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